동신대·광주여대도 등록금 동결 검토

전남대·조선대 등 인상률 최소화 위해 군살빼기 고심

최근 사립대학 총장들이 내년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뒤 성신여대와 상지대, 고려대가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내부적으로 동결 내지 최소 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2009년 예산에 대한 '군살빼기'에 돌입했으며, 대부분은 지난해 인상률보다는 낮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타 대학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신대는 등록금 인상률 잡기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신대는 27일 내년 등록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 또는 최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4년제 대학 중에 내년 등록금 동결 검토의사를 밝힌 것은 동신대가 처음이다.

동신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지난해 6%를 인상했지만 올해는 인상요인이 생기더라도 3%대를 넘기지 않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예산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등록금을 8% 인상했던 광주여대도 사립대총장협의회 의견을 존중해 등록금 동결 또는 최소 인상키로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내년 예산 경상비의 10%를 줄이도록 각 부서에 지침을 하달했다.

조선대도 등록금 최소 인상을 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조선대 예산팀 관계자는 "최근 각 부서의 예산요구액을 취합해 등록금 반영비율을 검토중에 있지만 지난해 7% 인상률보다 줄어들지 않겠냐"며 "가능한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신규 예산을 억제하고, 교직원의 인건비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전남대는 사립대들의 인상률을 참고해서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9월 출범한 재정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이미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인건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고, 시설투자의 우선순위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재검토해 등록금 인상요인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결국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해(8.6%) 수준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도 신입생 14%, 재학생 9.5%였던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보다는 대폭 낮춘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예산 절감방안을 고심중이다.

이밖에 호남대와 광주대 등 다른 사립대학들도 아직 내년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아 등록금 인상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인상률보다는 낮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필·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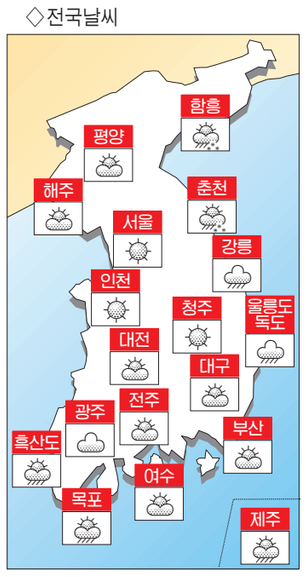
강풍 조심

11월 28일 (음 11월 1일)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조금 온 뒤 개겠다.

◇전국날씨

광 주	흐림	4~11℃
목 포	흐리고 한때 비	6~12℃
여 수	구름 많음	5~12℃
완 도	구름 많고 한때 비	6~12℃
구 례	흐림	0~10℃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3~13℃
장 흥	흐리고 한때 비	3~13℃
고 흥	구름 많음	4~14℃
순 천	흐림	0~13℃
영 광	흐리고 한때 비	4~12℃
진 도	흐리고 비	4~12℃
전 주	구름 많음	3~12℃
남 원	구름 많음	2~12℃
흑산도	흐리고 한때 비	8~11℃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북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1:48 14:41 썰물 07:12 20:00
여 수 밀물 09:26 21:13 썰물 02:42 15:31

▲해뜸 07:20 ▲해짐 17:21 ▲달뜸 07:50 ▲달짐 17:2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토)	30(일)	12/1(월)	2(화)	3(수)	4(목)
날 씨						
최저/최고	2/12	-1/12	2/12	2/12	3/13	4/12

광주 북구청 '한심 행정'

바뀐 규정 모르고 명퇴 수당 1억 초과 지급

광주시 북구청이 바뀐 규정을 모른 채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지난 2년간 총 1억 원에 가까운 명퇴수당을 초과로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북구의회 홍인화(민주·비례) 의원은 27일 북구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북구청이 지난 2006년부터 2 년간 명예퇴직 공무원 9명에게 명퇴수당 9천9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이 바뀌면서 공무원 명퇴수당 산정 방법이 본봉의 100% 기준에서 81%로 낮아졌지만 북구에서는 2년 넘게 이 사실을 모른 채 기존 방법대로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북구청이 올해 뒤늦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이 사실을 확인, 환수조치에 나섰지만 최근까지 6명에게서 5천200만원만 거둬들이는데 그쳤다는 것이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미환수금액 4천 700만원 가운데 1천600만원은 해당 퇴직공무원이 신용불량 상태여서 환수가 어려웠고, 나머지도 현금이 없어 자동차와 주택 등을 압류해놓고 있다"면서 "북구청이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측은 이와관련, "법령이 바뀐 사실이 관보에만 게재됐고 기초지자체에 전달되지 못한 데다 광주시에서도 이 내용을 일선 자치구로 알리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해 떠넘기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료 건강 클리닉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동강대학에서 진행된 무료 건강 클리닉에서 주민들이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동강대학은 이날 골다공증, 혈당, 간기능 등 8개 항목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방송광고공사 판매 대행 독점 위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이하 코바코 등)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의 내년말 도입 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81년 설립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해온 코바코에 대해서는 광고료 급등이나 군소방송 경영 악화 등을 막는다는 견해와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 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지적이 엇갈렸다. /연합뉴스

행시 여성 합격자 50% 첫 돌파

올해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이어 행정고시에서도 여성 강세 현상이 나타나 행정직군 최종 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도 행정고시 행정직군 최종 합격자 242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대에서는 행정학과 3학년인 전데레사(여·22)씨가 일반행정직렬에서 최종 합격했다.

이번 행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51.2%(124명)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행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2년 25.1%, 2004년 38.4%, 2005년 44.0%, 2007년 49.0%였다.

이번 행시에서는 일반행정직 김혜주(.여·29) 씨가 2차 시험 최고 점수(70.37점)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6월 발표된 외무고시 최종 합격자 35명 가운데 여성은 65.7%인 23명으로 지난해(67.7%)에 이어 여성 강세가 지속됐으며, 11월 25일 발표된 사법시험에서는 여성 합격자가 382명(38.01%)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건보료 46만원 내고 52만원 혜택 봤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약 4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진료비는 약 52만원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07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가입자 1인당 평균 보험료는 45만5천714원, 1인당 평균 보험 지급금은 51만5천96원을 기록했다.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률은 1.13배로 건강보험제 도입 초기인 1990년의 1.03배보다는 10%가량 높아졌지만 2006년의 1.15배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졌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 일수는 16.6일(외래 15일, 입원 1.6일)로 2006년 16일보다 소폭 늘었다. 1990년 7.9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입원 진료가 가장 많았던 질환은 2000년부터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치핵이었고 '노인성 백내장이 2000년 5위, 2006년 3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대신 폐렴이 3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고 설사 및 위장염은 꾸준히 4위를 지켰다.

외래 진료 1위 질환은 역시 2000년부터 선두였던 급성기관지염으로 집계됐으며, 급성편도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상기도감염, 치아우식증 등이 뒤를 따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난해 진료비는 2006년보다 24.1% 증가한 9조1천190억 원이었다. 이는 2002년 3조6천357억 원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합뉴스

"유족연금 남녀 차등 지급은 합헌"

남편 사망 때 아내에게 즉시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아내 사망 때 남편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60세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한정한 국민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문모씨가 "국민연금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문씨는 2004년 4월 부인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인 모 생명보험 회사에 근무하다 사망하자 사망일시금으로 1천176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씨는 다음해 8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구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문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구 국민연금법 제63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와 가입자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또 남편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우산동	대188,건193	10억6천	5억9천	노래연습장
쌍암동	대154,건416	14억	7억8천	오피스텔
벌교읍	대14981,건7733	31억5천	10억3천	자동차학원
용봉동	대137,건223	6억2천	3억5천	식당,사옥
화정동	대63,건174	3억8천	2억5천	상가,사무실
선암동	대317,건191	5억2천	3억6천	어린이집
신안동	대213,건899	22억6천	8억1천	모텔,목욕탕
금호동	대104,건234	7억3천	4억	상가,화원
남평읍	대81978,건380	43억4천	30억	레이콘회사
대인동	대267,건653	23억	10억	상가주차빌딩
소태동	대248,건37	1억5천	5천6백	종교시설
우산동	대727,건1431	67억2천	37억8천	자동차서비스
신가동	대60,건113	3억	2억1천	원룸12세대

아파트/빌라 전문 011-5522-8484/정하 011-5071-0005

소재지	명칭	면적	총층/층	감정가	최저가
내방동	헤티	32	20/2	1억1천	7700만
백운동	백운스카이	33	20/9	9600만	6720만
매곡동	서광인텔	47	20/1	1억8천	1억3300만
주월동	경남	24	20/11	7500만	5250만
쌍촌동	모아제일	32	20/1	1억2천	7400만
본촌동	현진에버빌	36	23/15	2억500만	1억4350만
진월동	현대	39	15/15	1억2천	8400만
진월동	한신	32	19/18	1억3천	9100만
치평동	중흥	32	18/6	1억4천	9660만
금호동	일신	32	16/3	1억500만	7350만
일곡동	롯데	51	18/1	2억1000만	1억1760만
미륵동	희망가	32	13/6	1억7천만	9520만
치평동	금호타운	32	17/1	1억4500만	8120만

주택/재개발 유팀장 010-5522-8484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암동	대41,건58	1억5천	8300만	2층주택
소촌동	대57,건53	9400만	6600만	2층주택
학동	대66,건46	1억4천	6300만	2층주택
신창동	대67,건50	2억3천	1억6천	2층주택
화정동	대134,건82	6억5천	2억9천	2층주택
광천동	대38,건49	1억1천	6200만	2층주택
주월동	대46,건38	1억	7400만	2층주택
백운동	대114,건27	2억8천	2억	단층주택
진월동	대39,건45	8100만	5700만	2층주택
백운동	대114,건28	2억8700	2억	단층주택
화정동	대134,건82	6억5600	2억9400	2층주택
궁동	대33,건64	2억3200	1억6300	5층주택
산수동	대44,건42	8500만	4700만	2층주택

숙박시설/상가 손이사 011-9611-2817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화순군	대1092,건898	17억4천	7억8천	요양병원적합
구례군	대803,건1098	38억	10억	관광호텔
누문동	대134,건400	14억5천	4억1천	6층모텔
남평읍	대832,건626	15억4천	5억5천	요양병원적합
완도읍	대151,건390	11억9천	5억3천	7층모텔
학 동	대100,건259	8억1천	2억9천	5층모텔
여수시	대158,건376	9억9천	8억9천	4층모텔
용봉동	5층(전용87)	7억	4억9천	복구청앞
월계동	1층(전용119)	11억2천	4억	LC타워옆
봉선동	1층(전용200)	20억3천	7억2천	대형식당
치평동	4층(전용46)	3억5백	1억1천	사무실
중흥동	1층(전용27)	5억1천	1억8천	할인마트
매월동	1층(전용15)	2억5천	1억1천	자동차상사

근린주택 김이사 010-8033-0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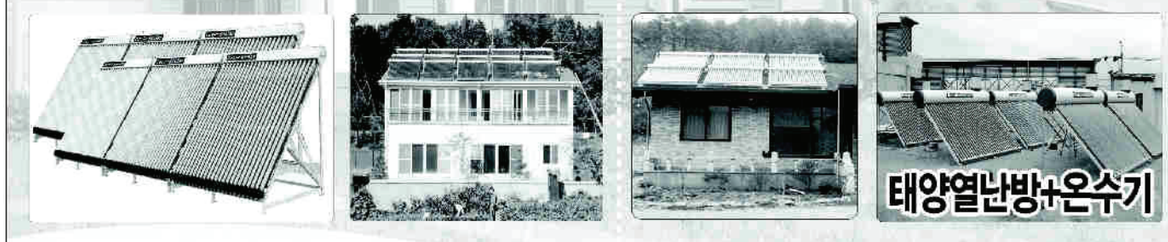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산수동	대96,건224	4억7천	2억1천	4층근린주택
용봉동	대56,건101	2억4천	1억3천	3층어린이집
화정동	대69,건99	2억8천	1억2천	3층근린주택
화정동	대341,건661	16억8천	7억5천	4층노래방
쌍촌동	대67,건149	4억7천	3억3천	4층마트
두암동	대82,건216	3억8천	1억7천	4층근린주택
문흥동	대46,건57	1억9천	1억	2층근린주택
우산동	대54,건160	2억8천	1억5천	4층근린주택
쌍암동	대44,건127	4억	2억2천	5층상가원룸
양 동	대32,건60	1억4천	4200만	3층근린주택
오치동	대152,건567	16억5천	9억2천	5층회센타
충장로	대59,건195	14억7천	5억2천	4층SK텔레콤
풍암동	대68,건161	4억1천	2억9천	3층상가원룸

공장/토지 박팀장 010-2611-5598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하남공단	대1000,건635	15억1천	8억5천	공장(골화학)
화순도곡	대643,건403	4억	1억8천	공장(김치)
오산동	대70,건128	2억	8900만	반도체공장
나주공산	대2682,건1118	4억2천	2억8천	공장(양계장)
담양월산	대2270,건450	21억8천	9억6천	공장(점미소)
영광남천	대276	2억9천	1억8천	상업용지
월산동	대110	4억3천	1억2천	토지만
농성동	답108	3억6천	2억	농지(상업)
도산동	농지152	2억5천	1억4천	농지(주거)
나주동강	농지353	1억5천	4300만	농지
화순다지	대1273,건553	3억	8800만	농가시설
장성삼계	농지791	1억8천	1억	농지(주거)
담양금성	대1292,건705	12억2천	6억8천	공장(강건)

쌍촌동 양동2종주거지역매매 대지2339㎡ 급매매 12억8천만 원룸,빌라,교회적합
옥동 공장 임대 크레인 2대 - 공장 368평 [공장 사무실 98평] 최고급 사무실 118평 좋은 조건 임대 임대문의 010-2611-5598
두암동 최고상권 확평 임대3층 (264㎡) 권리금, 시설비 없음 좋은 조건 임대 임대문의 010-7570-7525
누문동 6층모텔 대135,건400 감정가 14억5천 최저가 4억1천
학동 금호베스트빌 47평형 감정가 2억4천 최저가 1억6800만
화정동 이 편한 세상 67평형(185.78㎡) 감정가 4억9000만 최저가 3억4300만
양동 객실 18개모텔 대57,건182 감정가 4억3000만 매매 1억6000만

태양열 시스템으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해만 뜨면 무한으로 태양열 시스템으로 연료비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면 태양열 온수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 • 공장 • 호텔 • 목욕탕 • 유치원 • 교회 • 복지시설 등등..
• 미용실 • 식당 • 골프장 • 헬스클럽 등등..



기름보일러 및 심야보일러 사용요금이 많이 나오는 업소 및 용량이 부족한 곳에 더욱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순간 온수기 가격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보십시요!
※ 순간온수기보다 5배 이상 긴 수명으로...
※ 순간온수기보다 5배 이상 큰 용량의 태양열 온수기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난방 및 온수시공 전문업체 ※ 사용량이 많은 곳은 태양열 설치 시 절감된 연료비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36개월 할부)
Daejin solar (주)대진쏠라 제품문의 및 주문 1600-7480